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4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얼음 깨기

우선 순위

교회행사

우리는 각자의 우선 순위를 갖고 살아갑니다.
특히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 마음 속 우선 순위에 따라 움직이게 되지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봅니다.

1_ 삶 속에, 우선 순위를 순서대로 3가지를 적어 봅니다.

- ①
- ②
- ③

2_ 각자의 우선 순위를 들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나누어 보아요

4월

7일 진공척 양육 2기 시작

5월

5일 어린이 주일
“히즈쇼 뮤지컬”

12일 김성중 교수와 함께하는
온세대 연합예배

경배 찬양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X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X4)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주소서

선교

[김영진 선교사]

리오스

1. 리오스 교회 사역자 신학교육을 위한 벨엘 하우스에서 드러지는 예배와 교육이 은혜 가운데 이뤄지도록
2. 소와 송아지 나눔을 통한 복음의 통로를 위해서
3. 선교자의 우물사역, 병아리 나눔 사역, 비엔티안 기술학교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도록
4. 세 나라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믿음 건강을 위하여
5. 다하라 형제가 하나님께 기뻐하시게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소식

한문장 큰 울림

1. 제직회

1분기 제직회가 4월 17일 수요일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2. 대청소

굿붐맞이 대청소를 4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합니다.
마음 모아 함께 참여하여 주세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서서명 선교사
(1880-1934)
‘나환자의 어머니’ ‘조선인의 친구’
로 불리는 선교사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23장 14절)

교회 공동체와 세상 조직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교회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신명기 23장에 나온 '총회'는 곧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카할'은,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오늘의 교회 공동체와 연관된 상에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구분함을 통하여, 곧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2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 사례들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1_교회다움 : 거룩함과 온전함 (1~8절)

총회에 참가할 수 없는 자들이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고환이 상한 자'(1절)는 다른 신을 좇음으로 스스로 거세한 사람, '사생자'(2절)는 이방 종교를 따름으로 태어난 혼혈아를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암몬, 모압, 에돔 자손에 대한 여러 설명은 공동체의 구별됨, 거룩함과 온전함이 가장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여호와와 공동체는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탈출할 때에, '수많은 잡족'(출12:38)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며 따라온 사람들이었지요. 본문에 나타난 이방 민족과 육체적 어려움 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받아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나눔] 내가 생각했던 '거룩'과 말씀이 말하는 '거룩'의 가장 큰 차이점 한가지는 무엇인가요?

[기도] 우리가 '수많은 잡족'이었음을 생각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2_교회다움 : 전략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9~14절)

9-14절에 나타난 말씀에는,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몽설(남성이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정액을 배출하는 형상)을 하면 진영 밖으로 나가 정결 예식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몽설을 경험한 남성과 그 상관까지도 모두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먼저, 경험자는 상관에게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고, 상관은 한 명이라도 아쉬운 전쟁의 상황 중에 그를 제외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세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민망한 내용까지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전쟁의 승패는 많은 숫자나 인간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자리를 정결함으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 중에 앞서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나눔] 적군의 수는 많고, 우리는 너무 적은 절대적 순간에, 내가 상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내가 마주한 영적 전쟁 앞에서 '정결함'을 가장 귀히 여기며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3_교회다움 : 압제당하는 자들을 돌봄으로 (15-16절)

15-16절에서는 도망쳐 나온 종들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에, 다시 주인에게 매정하게 돌려보내는 것이 당시 세상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도망한 그 종을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그 종이 택하여 있게 하고, 거주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압제를 당하는 이에 대해서 피난처를 제공하고, 그 사람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한 사람을 생각하여 봅시다. 어떻게 하면 그 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함께 돌아볼 수 있을까요?